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연합감리교회에 보내는 청원서를 위해 교인 서명을 받습니다. 예배 마친 후 안내 테이블에 놓인 청원서를 읽어보신 후 용지에 이름과 주소와 함께 서명하시면 됩니다. 청원의 내용은:
 -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도록
 - 세광교회가 이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을 - 예배, 전도, 섬김 -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 이번 목요일(8월2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8월5일)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 8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서영수 집사 (시편 51:1-12)
이번 주 친교: 하영미 집사, 이미경 집사
다음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윤정호 집사

제18권 30호

2018년 7월 29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종으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5:1-21** -----인도자
 설교(Sermon)----- **“Sola Fida,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20장 (통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 14 ----- 변명균 집사
 찬양(Choir) -----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5:1-21**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Sola Fida,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516장 (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행 13:21-23, 38-39; 14:6-15; 17:30-31)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거쳐 갈라디아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을 읽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건지 못하던 자를 온전케 한 후에 자신들에게 제사드리려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구약을 읽던 회당 사람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신들이 헛된 신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밝히며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이름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고전 9:22). 율법의 약속을 기다리며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이며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힘 세고, 지혜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은혜를 바라며 절하던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아름답게 하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고 말로도 밝히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목마름을 헤아리시는 예수, 반복과 생명의 근원 예수께서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를 듣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달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 의가 우리를 의롭게, 가치있게 하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는 우상과 재물과 명예와 힘을 구한다고 우리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목마름과 간구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가치있어지며, 무한한 복락과 영광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만 들어도 인생이 보람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간절한 바램입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 일생에 한 일들이 보람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다들 원하는데,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일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칭찬과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이 이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헛된 자랑과 애써 가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던져버리고, 경함이 없는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을 좇던 길에서 돌아서서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좇아 삽니다.